



1. 활도만족특
  1. 활도만족특
  1. 활도만족특
  1. 활도만족특
- 역대 지역화  
경제개발광  
제업정발광  
경산시개관  
역대 지역화  
지침복지문  
논리논리  
있하로있  
력약하색  
1. 활도만족특

## 항공우주엑스포 성황리에 마쳐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경상남도·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공동주최로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

이루었다. 18일 오프닝 차량 퍼레이드와 전야제 및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군블랙이글의 푸른창공을 수놓는 비행시범을 비롯한 루마니아 호크팀의 고난도 비행시범 등 박진감 넘치는 에어쇼와 우주전시 및 체험관, KBS전국노래자랑 등 각종 공연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삼천포항에서 개최한 수산물 축제와 어우러진 수륙 양용 항공기의 시범 비행과 한·중 열기구대회 및 탑승체험 등 60종의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전국에서도 항공우주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사천에서 2004년부터 연3회째 많은 관람객과 우수한 민·관·군의 항공기를 동원하고 항공 우주메니아들의 많은 참여 속에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해마다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엑스포 행사를 통하여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도시임을 잘 보여준 행사였다고 평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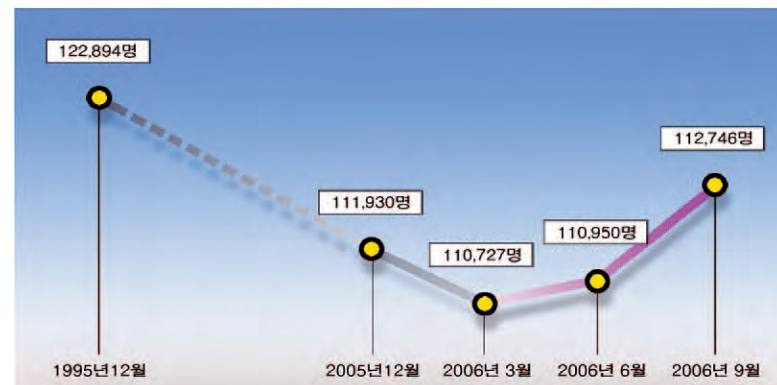
시는 앞으로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국제 규모의 항공우주박람회로 확대 발전시켜 사천항공클러스터는 물론 2015년 세계항공국 10위권 진입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면에 폐막인사)

##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금년 3월 이후 2천명 증가

진사공단 등 기업체 유치가 인구증가에 큰 몫



사천시 인구가도·농통합이후 11년만에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도·농통합당시 12만3천명이던 인구가 올해 3월 11만명으로 최저인구에서 점차적으로 늘어 9월말 기준으로 11만2천746명으로 2천명이 증가 하였다.

사천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요인을 보면 공단지역 기업체 유치가 따른 고용창출에 기인한 면이 가장 높은 것

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시가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희망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우리시는 첨단항공산업의 메카이며, SPP 해양조선과 외국인 증가, 진사산업단지 전량 분양 등으로 우리시에 전입하여 오는 시민들이 희망을 가진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인구증가 역점시책으로 출산 및 전입가정에 대하여 우대인정 발급제 시행과 출산기념품 지급 그리고 셋째자녀이상 출산시 장려금 지원과 임신부와 신생아 및 영·유아 보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교육비 걱정없는 시」를 만들고자 셋째이상 자녀와 두명 이상이 우리시로 전입오는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여 올해부터 우리시 관내 고등학생 82명에게 지원 하였으며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시는 항공클러스터 산업, 두량농공단지 조성, 삼호조선관련 종사자, 행정타운 조성 인구유입, 기업도시 및 남해안관광벨트개발 사업 등의 시책사업 적극 추진으로 인구증가 속도가 본격화 될 것이다.

## 여자(고등부·일반) 농구 동반 우승 시청 농구팀 창단 4년만에 쾌거

농구의 고장 사천시의 농구팀이 경북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육대회의 여자고등부와 여자일반부 농구경기 우승을 독차지 했다.

사천시청 농구팀은 여자일반부 경남대표로 출전해 10월23일 12시 40분부터 김천체육관에서 개최된 결승전에서 대구 동아백화점을 53대 42로 이겨 여자일반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삼천포 여고 농구팀은 같은 날 11시부터 김천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자고등부 결승전에서 서울 숙명여고를 68대58로 이겨 여자고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결승전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시민 및

사천시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버스로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를 마다않고 경기장에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쳤으로써 주위로부터 역시 농구도시의 시민다운 면모를 보인다는 칭송을 받았다.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최된 농구 여자고등부와 여자일반부의 우승을 사천시에서 모두 차지함으로써 농구 고장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그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게 됐다.

사천시에서는 지역의 농구발전 전을 도모하고 농구도시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2007년도에 개최될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의 유치를 신청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도민일보)

## 산불예방 대책 총력전

대책본부 설치, 전 행정력 동원 산불ZERO화

사천시는 산불방지 일환책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7개월 동안 전 행정력과 기관,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산불감시 운영체제로 전환, 한건의 산불도 없는 푸른 사천가꾸기 운동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ZERO화 사전준비에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초동진화의 지휘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 및 전출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101명의 유급산불감시원과 산불특별진화대원 28명, 산불공익요원 3명이 상시 근무하고, 등산로, 과거 산불 발생지, 산불 취약지인 곤약면 무고리 만점마을 외 21개소에 순찰 근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 일야면적 23,673ha의 산림 중 14,293ha(60%)의 산림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봉명산의 22개소 80km의 등산로에서 개방된 13개소 등산로

중 각산 7개소와 장령산 2개 노선은 우리시를 찾는 등산객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면 개방하였으며, 산불위험 요인이 많은 사남면 구룡사 주변 외 114개소 207km에 대해 산록면 풀베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 차량을 이용해 홍보방송과 산 연접 취약지에 깃발 경고판, 현수막 등 1,600여점을 제작 설치해 주민경각심을 고취하고, 산 연접 100m이내에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로 적발 될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사천지역의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이점을 주지해 산불방지에 동참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830-4705)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소비자와 함께하는 요리용 토마토 생산평가회에서 전문 요리사가 토마토 요리를 직접 선보이고 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는 농촌진흥청 주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 분야에

선정되어 5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게 되었다.

이번 농촌진흥청 주최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운영분야를 비롯하여 6개 분야로 실시하였으며, 1, 2차 현지심사 및 사례발표를 통해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하게 되었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06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분야에서는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주경야독 농업인교육,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에게 사랑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상품화를 위한 요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경야독 교육프로그램 중 정보화 성공농가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은 홈페이지 농가들의 경우 전자상거래실적을 3배 정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교육 성과로 인해 9월 26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게 되었다.

이들 계기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에게 사랑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생식 등 건강식품 60여 품목을 가지고 도자기시연 및 체험행사, 관광사진전 등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넉넉하고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방에 거주하시는 향우회원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후원을 당부하고 있다.

## 시 우수 특산품 판촉전 개최

11월 3일 ~ 9일,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사천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9일 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우리지역 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전한 농수특산품을

도시민들에게 선보여 고정적인 고객확보와 판로확대 계기를 마련코자 사천시 특산품 판촉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단감, 쌀 등 농산물과 멸치, 쥐치포 등의 수산물, 생활도자기 등 공예품, 감식초,



가을걷이 한 벼밭리기 한창

향촌동 모레마을 주민들이 가을걷이 한 벼를 남일대 해수목장 주차장에서 말리기에 분주하다. (사진/글 광동진)



# ‘사천 아카데미’ 교양강좌 회원제 운영으로 주민 관심 높다

시민들의 교양향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기위해 사천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천 아카데미’ 교양강좌가 이제 점차 고정 회원을 확보해 가면서 한층 시민들의 결으로 다가가고 있다.

사천아카데미는 초기단계에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했으나, 강좌 회수를 거듭 할수록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교양향상은 물론 자아를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회원 확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매월 강좌 주제를 새롭게 편성해 신선함을 더해감으로써 시민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시정을 구현하는 지방화 시대에 시민 평생교육을 보다 내실 있고 유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천 아카데미’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 행정의 노력과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천아카데미 발전을 위해, 한달

에 한번만은 ‘이웃과 함께와서 같이듣고 즐기는 아카데미’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는 총무과 (830-4270)

## 제13강 11월 15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이영권 교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이해’



의 경제포커스’ 진행자를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자녀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세계가 보인다, 경쟁력이

제13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된다. 명지대학교 무역학과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뉴욕 New School에서 국제경영학과정을 수료하고, 명지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명지대 겸임교수와 KBS 2 TV ‘세상의 아홉’ 경제브리핑 진행자, KBS 2 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진행자를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자녀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세계가 보인다, 경쟁력이

보인다’의 다수가 있으며, 이영권 박사의 강좌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경제 강연으로서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을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좋은 강의가 기대 된다.

## 제14강 12월 14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이성호 교수 ‘21세기 신세대 자녀교육’



제14강은 내달 14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흔들리는 부모, 방황하는 아이들’, ‘자녀교육의 비법은 없다’의 다수가 있으며, 20여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변하는 21세기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국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신세대 자녀교육에 대한 좋은 강의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나타난 문제점은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연계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달성할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평가하기로 했으며, 개선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11회 농업인 한마당 행사

농업인의 자기진작과 자금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사천체육관에서 1500여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농업인 한마당 행사는 농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가 주관하고 사천시와 전 농업관련단체가 후원한다.

주요 행사는 불거리와 먹거리, 우리시 생산 수출 및 으뜸

농산물 산지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시식, 시음, 시연회와 민속경기, 체육행사, 농기계 전시 등이다.

부대행사는 행운권 추첨, 농업시책관련 홍보, 사물놀이 시연, 미니꽃 화분 무료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행사가 농업인 상호 정보교환과 친선을 도모하고, 살고 싶고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공비축 미곡 매입



사천시는 2006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지난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키로 했다.

산물벼는 오는 15일까지 농업, 풍곡농산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며, 포대벼는 11월부터 12월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총 매입량은 조곡(40kg) 97735포대로 작년보다 34% 감소한 양이다.

매입방법은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산물벼와 포대벼로 매입

하게 되며 당초 농가에 배정된 물량 내에서 산물벼에서 포대벼로 얼마든지 전환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산지쌀값 조사결과 나오는 내년 1월 중 정산하게 된다.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 미곡으로 매입한 가격인 조곡 40kg당 48450원(1등급)이며, 산물벼는 포대벼의 우선 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 670원을 뺀 47780원이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유통담당(830-4773)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사천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건 명 : 사천시 옥외광고업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2. 교육일시 : 2006. 11. 17(금) 14: 00 ~ 17:00
3. 교육장소 : 사천시청(사천청사)3층 대회의실
4. 교육대상 : 사천시 옥외광고업등록업소 종사자 전원
5.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내용
  - 옥외광고물 종류별 설치방법 및 위법 시 법적조치사항
  - 기타 당부사항 및 토의
6. 교육수강 비용 : 없음

#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기간 설정 운영

주요간선도로, 상가 및 주택가등지에 자극적이고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각공해로 대두되고 있어, 불법, 불량광고물들을 체계적 정비, 관리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정비한다.

- 기 간 : 2006. 11.1 ~ 2006. 11.30(1개월)
- 정비기간 : 주간선도로→간선도로→이면도로 순으로 단계별 정비
- 중점정비대상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
  - 도로변,가로수 담장에 부착한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 하수관거 대대적 정비 올 84억여원 들여4개지구 사업 착수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하수구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하천오염과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의 주범으로 자리잡아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사천시 관내의 인구밀집지역인 사천읍과 벌용동 등 동지역의 경우 꾸준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적은 예산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 처리되지 않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으며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수구를 타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시 빗물이 하수구로 흘러들면서 생활오수 등과 뒤섞여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인근지역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시는 올해 84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천읍을 비롯한 동지역의 우수분리사업에 착수해 하수도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민원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차

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27억4700만원을 들여 벌용지구 9.93km를 비롯해 13억6700만원을 들여 동서금지구 7.64km, 31억2600만원을 들여사천읍 수석지구 10.8km 등 4개지구에 대한 하수관거(오. 우수 분리사업)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한 뒤 곧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적정처리하게되며 악취와 수질오염, 침수피해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원인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 57.3%에 불과한 하수관거보급율을 오는 2010년까지 78%로 높임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사천만과 삼천포항 바다가 되살아 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온 하수관거를 제대로 정비해 각종 민원 발생을 야기했으나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가지 공사로 인해 차량통행이나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시민중심, 시민체감, 시민감동

사천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시민중심, 시민체감, 시민감동을 위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2006년도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고객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의 불만요인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을 발굴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개선요인을 발굴·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환류체계를 통해 CS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고객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남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관, 부서 단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종합만족도와 친절도, 신속성 등 직원의 행태, 공공시설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주요시책 및 고객실천 과제성과에 대한 만족도 등 8개 분야 124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나타난 문제점은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연계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달성할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평가하기로 했으며, 개선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수막 인터넷(온라인)신청·접수

2006. 10.30(월)부터 현수막 신청, 접수 처리에 대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우리시 관내 현수막 계절을 통한 각종행사와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과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인터넷(온라인)신청, 접수 처리를 합니다.

□ 신청(신고) 접수처 : 사천시 생활정보팀 (http://lifegis.sacheon.go.kr/)

□ 신청(신고) 절차  
○ 업무의 흐름도 : 사천시 생활정보팀 접수 현수막 게시 신청(광고주)→신청내역 검토 후 승인 및 반려처리(시장)→수수료 입금(광고주)→입금 확인 후 검인처리(시장)→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광고주)  
□ 문의부서 : 사천시청 도시건축과 미관정비담당 (055-830-8571)

# 「2006사천항공우주엑스포」폐막 인사말씀

종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난 10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사천시 진산산업단지입장에서 “사천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 라는 주제로 2006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민·관·군·산·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준비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가까이 함께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경상남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제3훈련비행단 등 관련 기관·단체·업체, 군, 학교 그리고 항공동호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고르지 못한 기상관계로 에어쇼 등 일부행사가 계획대로 개최되지 못하는 등 다소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민·관·군·산·학 모두가 참여한 엑스포로서, 각종 항공대회,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망 심포지엄, 항공체험과 전시 등으로 청소년에게 항공우주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의 미래를 잘 보여준 미래 지향적인 항공우주 엑스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행행사를 통하여 잠깐 접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사천항공우주엑스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2006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여러분과 관람객 모두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공유재산 대부기간 연장(갱신) 계약체결 안내

우리 시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기간이 2006. 12. 31. 만료됨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갱신)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코자 하니 계속 대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갱신)기간 2007. 1. 1. ~ 2009. 12. 31.

■ 연장(갱신)계약 신청  
○ 신청기간 : 2006. 11. 1. ~ 11. 30.  
○ 신청장소 : 사천시청 회계과 (삼천포 청사 3층) 재산관리담당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대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참물 : 갱신안내문, 신분증, 인장, 수수료300원(증지대)

○ 문의처 : 사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 830-4329 ~ 4332

# 사천시공고 제1077호 10월 사천시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고

◎ 사천시수도서비스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매일6개항목, 매주8개항목, 매월55개항목, 매월 16년이상 노후관11개항목, 매월 가정수도꼭지 5개항목, 매분기 급수과정별12개항목)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9월 관망정수장 및 관역상수도 수돗물 수질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상수도 정수장

정수장명	관망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관리단
위 치	관망정수장 165-1	총면적 배후리18
검사항목(총55개)	수질기준	수질검사결과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3. 불소	1.5mg/l이하	불검출
4.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불검출
5. 질산성질소	10mg/l이하	0.8
6. 잔류염소	0.2 ~ 4.0mg/l	0.85
7. 총트리할로메탄	0.1mg/l이하	0.019
8. 클로로포름	0.05mg/l이하	0.0149
9. 염도	300mg/l이하	41
10. 수소이온농도	5.8 ~ 8.5	7.5
11. 중금속비류	500mg/l이하	72
12. 철	0.3mg/l이하	불검출
13. 탁도	0.5 NTU이하	0.13
14. 냄새(이취 없을 것), 맛(이미 없을 것)		적합
15. 할로아세테타이드와 10개 항목	각 정수장별 불검출 및 수질기준 이하	
16. 대장균의 28개 항목	각 정수장별 불검출	

2. 검사결과  
○ 10월중 관망 정수장 및 관역상수도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55개 전 항목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로 적합하며,  
○ 수돗물에 소독 냄새가 나는 것은 수인성염분 예방 및 2차 오염예방을 위하여 염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보리차 등을 넣어 끓여 드시거나, 냉정고에 넣어두고 차게 해서 드시면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수도서비스센터장

# 사천시 고시 제2006-83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개방 및 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06. 9. 21  
사 천 시 장 (단위:ha)

소 재 지	통제면적	통제기간	비 고
계 : 39개소	14,292		
사천시 사천읍 구암, 금곡, 장리리	924	2006. 11. 1 ~ 2007. 5. 15	
사천시 정동면 화암, 풍정, 장산, 감곡, 소곡, 마곡, 역촌리	2,132	"	
사천시 사남면 화전, 우천, 가천, 계양리	1,951	"	
사천시 용현면 구월, 용치, 석계리	784	"	
사천시 축동면 반룡, 탑리	269	"	
사천시 곤양면 무고, 송전, 목곡, 홍사, 가회리	2,138	"	
사천시 곤양면 용산, 성방, 분촌, 은사, 초량, 작골, 산흥리	2,518	"	
사천시 서포면 금리리	364	"	
사천시 통사, 선구, 남양동	1,088	"	각산 전역
사천시 선구, 벌룡, 향촌, 남양동	2,124	"	외룡산 전역
2. 등산로 개방 및 폐쇄(80.2km) ○ 개방(52.7km) - 각 산 : 문화예술회관~악수터~각산 송신탑~각산 산성~대방사외6개노선 전구간(24km) - 외룡산 : 임내저수지~아령정~도암재~새삼바위~민재봉~백전봉(9km) - 병령산 : 다솔사~보안암까지(3km) - 이구산 : 선광사~성황당산~홍무산~가곡재(10.2km) - 정령산 : 송보아파트~화암갈림길~구암입도외2개노선 전구간(6.5km) ○ 폐쇄(27.5km) - 와룡산(19km) : 와룡마을~도암재(1.5km), 와룡마을~거북바위(1.2km), 와룡골~수정골~헝기장(1.5km), 용강정수장~거북바위~병봉바위~민재봉(5.8km), 진봉계~민재봉(2.5km), 용현신기~안정봉화대~선바위~명지재~백전재(6.5km) - 병령산(6km) : 곤양 단정부락~보안암~악수터(4km), 서봉암~병령산(2km) - 이구산(2.5km) : 수정~성황당산(0.9km), 금곡~금굴(1.6km)			
3. 통제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할 사람은 산림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지참 입산허가를 받은 후 입산하시기 바랍니다.			
4. 위 통제사항을 어기는 시벌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산통제제재 : 2007. 5. 16(별도공고 생략)			

2006. 10. 사천항공우주엑스포 대회장 사 천 시 장 김 수 영



복지알림방

#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제도 지침 변경 안내

**I. 추진 배경**  
2001년 7월 1일부터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로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  
-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II. 주요 내용**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인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음(이하 '신규진입 중단'으로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됨  
※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진입 중단

# 노인의날 기념식 및 실버건강대축제



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에서는 참여해 노인들에게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했다. 아울러 제1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수법보인 및 노인 복지기자 14명에

사천시에서 주최하고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에서 주관하는 2006년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건강대축제가 10월 27일 사천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120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해 노인건강체조시범을 비롯해 각종체육경기 및 읍면동 분회별 노래자랑으로 흥겹

게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사천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호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으로 건전한 노인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 자활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 개최

사천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업무에 벗어나 자활 근로의욕 증진 프로그램 행사를 연중 2회 개최를 한다. 상반기 때는 낙안읍성 견학을 4월 21일에 다녀왔고, 하반기는 지난 10월 13일에 실시했다. 먼 곳을 다녀오는 것 보다 가까이서 음식을 먹으면서



과, 사천자활후견기관 운영 위원인 사천문화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점희 시의원, 최인환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격려를 해주었으며 사남 초전 마을 주민들과 가사·간병 수혜 가구 할머니들도 참여하여 보다 풍성한 행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천시 부시장

#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 가맹점 현황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양양 및 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10%할인을 협조해 주신 이·미·용업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가맹점을 모집하오니 이·마·용업소장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번	구분	시설(업소)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인센티브 내용	전화번호
1	수영장	사천시 실내수영장	사천시장	발리동	20%할인	
2	미용	하나로예식장 미용실	정지선	발리동 261-5	10%할인	832-1361
3	미용	박호준과 가위잡이	최용봉	발리동 253-10	10%할인	833-1492
4	이용	대동이용원	송진욱	서동314-4(수협정문)	10%할인	833-3359
5	이용	명랑이용원	백훈기	동금동 62-37	10%할인	833-2208
6	이용	부산이용원	서형남	사천농협 남부지소 옆	10%할인	852-5445
7	이용	평화이발관	서경순	사천읍 평화리 87	10%할인	853-4141
8	이용	신세계이용원	이갑조	사천읍 평화리 162-1	10%할인	854-3225
9	미용	이철 헤어모드	이찬식	선구동 20-14	10%할인	835-5253
10	미용	햇 헤어라인	하명숙	발리동 발리주공 207-103	10%할인	835-2270
11	미용	목화 미용실	박갑봉	발리동 발리주공 입구	10%할인	832-1266
12	이용	현대이용원	정대동	선구동 281-1	10%할인	833-0068
13	이용	동서이용원	조학래	동동 184-10	10%할인	833-9061
14	미용	중해어모드	전해란	사천읍 수석리 232-9	10%할인	852-7274
15	미용	에스미용실	강해숙	발리동 70-4	10%할인	833-6678
16	미용	타오미용실	서순란	용강동 용강주공상가 106	10%할인	833-1131
17	미용	아름미용실	유정민	발리동 422-7	10%할인	832-2301
18	미용	수현미용실	이광자	발리동 838 현대상가 205	10%할인	835-1381
19	미용	당기미용실	허경애	동금동 경남상가 나-4290	10%할인	832-4290
20	미용	영광미용실	추순진	동금동 86-4	10%할인	832-6701
21	미용	조순연미용실	조순연	선구동 18-62	10%할인	833-0321
22	미용	모아미용실	김종아	서동 322-20	10%할인	832-6525
23	미용	다솜미용실	강선경	관영면 남문리 52-26	10%할인	854-4047

※ 문의 : 사천시청 사회복지과 ☎ 830-4359

# 자원봉사자 모집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등 봉사 활동을 원하시는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 자격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개인, 단체 등 누구나  
□ 모집기간 : 년 중  
□ 자원봉사자 가입방법 : 사천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http://vt.sacheon.go.kr/> 접속  
자원봉사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  
□ 모집기간 : 년 중  
□ 봉사활동의 범위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발전 등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명시된 모든 활동.

# 2006년산 벼 보급종 신청 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06. 10. 2 ~ 2006. 12. 30
  2.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3. 본시 예시량
- | 계       | 조생종 | 중생종   | 중 만 생 종 |        |       |        |
|---------|-----|-------|---------|--------|-------|--------|
| (kg)    | 운광벼 | 화영벼   | 남평벼     | 동진호    | 동안벼   | 일미벼    |
| 106.200 | 500 | 1.500 | 23.000  | 44.200 | 2.000 | 35.000 |
4. 신청단위 : 20kg/포
  5. 공급가격 : 추후통보
  6. 종자유통시스템에 읍면동 예시량 초과 되면 신청이 종료됨으로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830-4793

보건알림방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 예방접종 기간 : 2006. 11. 16 ~ 12. 29
- 무료접종 시작일 : 2006. 11. 16(목) ~
- 유료접종 시작일 : 2006. 11. 27(월) ~
- 65세 이상 무료접종자의 거주지별 접종 일정표 『읍·면지역 일정』

거주지역명	접종일정	접종장소
사천읍	11. 16(목) ~ 11. 20(월)	보건소 (사천읍) 전화 830-8763
정동면 (고읍, 동계, 예수, 화암)	11. 21(화) ~ 11. 23(수)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곤영면, 관영면, 서포면	11. 16(목) ~ 11. 23(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거주지역명	접종일정	접종장소
동서금동	11. 16(목)	보건위생과 (동서금동) 전화 830-8477
선구동	11. 17(금)	
벌용동	11. 20(월)	
동서동	11. 21(화)	
향촌동	11. 22(수)	
남양동	11. 23(목)	

- 접종 대상자
- 무료접종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보호카드 지참)
- 유료접종 대상자 : 생후24개월이상인구(주민번호 확인가능한 신분증)
- 접종 시간 : 미취학 아동(09:00~12:00), 취학 아동, 성인(09:00~17:00)
- 접종 장소 : 사천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접종 대금 : 7,200원/1회 (36개월 이상 ~ 성인) : 3,600원/1회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병·의원 접종 권장대상
- 6개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신부
-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담당주치의와 상담 후 병원접종 권장)

# “안전관리현장에 담긴 가치관과 행동강령을 실천합시다.”

# 『안 전 관 리 현 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뤄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I.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I.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I.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I. 국가기반체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I.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I.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 I.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

저수조는 비상이 또는 단수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대한 청소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이용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제2항(위생상의 조치)규정에 의거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할 의무와 청소 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으면 '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건축법에 의한 3000㎡ 이상의 업무시설, 2000㎡ 이상의 건축물로 2인 이상의 용도(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학

교 및 복지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공공시설, 음식점, 공방, 금융업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이상의 아파트 저수조 청소 업체 : 조일환경 ☎ 835-6643, 영광산업 ☎ 835-1751, 사천환경산업 ☎ 835-4477, 푸른환경 ☎ 852-2770 문의/수도과 수도시설담당 ☎ 830-4653

일반주택 및 시설물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2006년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 안내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20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함에 이어 자동차등록원부, 화재증명 등 10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여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확대일시 : 2006. 9. 20부터 □ 대상민원 : 20종 30종 확대 □ 인터넷 주소 - 통합전자민원창구(G4C) 바로가기 : <https://www.egov.go.kr> - 사천시 홈페이지 : <http://www.sacheon.go.kr> 통합전자민원창구(G4C) 클릭 또는 <http://www.sacheon.go.kr> → 전자민원창구 → 통합전자민원창구(G4C) 클릭 □ 이용안내 : 통합전자민원창구(G4C)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하신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소관부처	민원서비스명	서비스개시
국가보훈처 (6종)	교육보훈대상자증명	'05. 7월
	교육지원대상자증명	'05. 7월
	국가유공자(유족)확인	'05. 7월
	대학수업보훈대상자증명	'05. 7월
	취업보훈대상자증명	'05. 7월
	취업지원대상자증명	'05. 7월
법무부 (6종)	국세기소신고사실증명	'05. 7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05. 7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05. 7월
	합격증명(확인서)	관련규정 개정 후
행정자치부 (2종)	국립선정신고사실증명	'06. 9월
	국립이탈신고사실증명	'06. 9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04. 4월
	토지(임야)대장	'03. 9월
농림부 (1종)	농지원부등본	'04. 4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03. 9월
	장애인영양조사	'04. 4월
	예방접종증명서	관련규정 개정 후
여성가족부 (1종)	보(학)자가검증증명서	'04. 4월
	개발공시지가확인서	'03. 9월
	건축물대장	'04. 4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06. 9월
해양수산부 (5종)	승무령증명	'05. 7월
	위험화물작업제한승무령증명부	'05. 7월
	공사기초고정명(공사실적명명원)	'06. 9월
	실적명명(공사,제조)	'06. 9월
병무청 (3종)	수산물결정명명서	'06. 9월
	병역명명서발급	'05. 7월
	화재명명서	'06. 9월
	구조 및 구조명명서	'06. 9월

# 6·25전쟁, 때

# 역술하게 돌아가신 가족은 없으십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 드립니다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법에 의해 한국전쟁 전후 좌 우의 피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권위주의 통치 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05.12.1 2006.11.30 (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한국전쟁 전후 좌 우의 관련 사건 및 집단 희생 사건 (예, 국민보도연맹, 군대 경찰 및 인민군에 의한 피해 등) ○ 해방이후 불법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개별법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제주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민주화운동, 93.2.25 이후 군의문사사건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족이나 친족 ○ 사건을 경험, 목격한 분이나 직접 전해들은 분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하단)에 있으며 시청, 도청에서 받을 수 있음
5. 접수처 및 문의 ○ 시청 총무과 ☎ 830-4271 및 도청 행정과 ☎ 211-2717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민원실(02-3406-2500 ~ 4 주소 : 우100-728/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 센터2층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절차 안내

- ① 건축허가(신고) 등(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법 제10조) ○ 부과대상 :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의 건축행위(법 제6조) ○ 납부부과자 : 건축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제액의 신청에 필요한 내역서 제출(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② 부담금 예정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부과자에게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액 등을 미리 통지(법 제11조제2항 등) ※ 공제대상 부담금 및 설치비용 공제
- ③ 고지 전 심사청구 - 예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부과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법 제11조제3항 등)
- ④ 심사결과 통지 및 결정부과 ○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가 없는 경우 ○ 예정 통지한 금액,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 ○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2월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
- ⑤ 물납신청,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 및 정정통지 ○ 결정부과일 등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물납 신청 ○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 등의 경우 결정부과일 등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법 제15조제1항 등)
- ⑥ 납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준공일까지 신청 전까지 납부)(법 제13조제1항)
- ⑦ 부담금의 환급 -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준공일 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 055-830-8568) 으로 문의하시면 정정적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천시공 제2006-103호

#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사 천 시 장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계량기종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계량기 ○ 관수동계량 ○ 검시지시계량 ○ 전자기시시계량 ○ 분동 및 추 ○ 전량누세검량 ○ 누세검량 ○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2. 검사일시 및 장소
- | 일자구분          | 당일 : 10:00 ~ 12:00(오전) | 당일 14:00 ~ 17:00(오후)     |
|---------------|------------------------|--------------------------|
| 2006.11. 6(월) | 검사장소 : 검사구역            | 검사장소 : 검사구역              |
| 2006.11. 7(화) | 용현면사무소                 | 용현면 화동                   |
| 2006.11. 8(수) | 사남면사무소                 | 사남면 "                    |
| 2006.11. 9(목) | 정동면사무소                 | 정동면 "                    |
| 2006.11.10(금) | 축동면사무소                 | 축동면 관영면사무소               |
| 2006.11.13(월) | 서포면사무소                 | 서포면 화동                   |
| 2006.11.14(화) | 관영면사무소                 | 관영면 "                    |
| 2006.11.16(목) | 사천공설운동장                | 사천읍 "                    |
| 2006.11.17(금) | "                      | 사천읍 "                    |
| 2006.11.20(월) | 구 축동사무소                | 남양동 향촌동사무소               |
| 2006.11.22(수) | 구 동화동사무소               | 동서동 화동                   |
| 2006.11.23(목) | "                      | 선구동 "                    |
| 2006.11.24(금) | 삼천포광설운동장               | 동서금동 "                   |
| 2006.11.27(월) | "                      | 벌용동 "                    |
| 2006.11.29(수) | 사천공설운동장                | 읍·면지역 : 전량누세검량 및 누세검량 검사 |
| 2006.11.30(목) | 삼천포광설운동장               | 동 지 역 : 전량누세검량 및 누세검량 검사 |
| 2006. 12.5-12 | 계량기 소재지                | 읍·면·동 지역 : 소재장소 검사(현지)   |
| 2006.12. 1(금) | 사천공설운동장                | 전 읍·면 미검사 계량기            |
| 2006.12. 4(월) | 삼천포광설운동장               | 전 동 미검사 계량기              |
3. 기타사항 :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목적에 부응하고 있는자는 관계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문의처 : 사천시청 지역계



#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삼호조선(주) 방문

## 친환경 시설로 3000~4000명 고용효과 창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통영시 도남동 소재 삼호조선(주)을 방문했다. 삼호조선(주)은 지난 2006년 4월 6일 사천시의 MOU를 체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삼호조선의 사천 이전과 관련해 시민들의 여론이 유차와 반대여론이 팽배해 삼호조선

측은 현 위치의 삼호조선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삼호조선이 사천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사천시의 양해 각서를 통해 이미 밝힌바 있고, 오는 2010년 매출액 1조원 달성을 사천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사천 이전의 강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다.

삼호조선 본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회사 측은 블록공장 사천 이전은 기정사실로 그동안 1단계 용역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오는 11월말 농공단지 지정 신청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사전협의, 12월까지 사천시 관련부서와 협의완료해 내년 1월초 농공단지 지정계획(안) 공람공고, 4월 토지 수용 공고 및 2단계 용역 추진, 7월 착공한다는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산업건설위원회 탁석주의원은 조선소의 특성상 소음과 쇳가루, 페인트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회사측은 페인트시공은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는 물론 도장, 용접, 연마 등은 별도의

직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소음 진동에 대해서도 100억원정도 투자해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건축물 내부 차단된 시설에서 작업하는 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분규 삼호조선대표는 조선소의 특성상 지역인 고용이 불가피하고, 삼호조선이 사천으로 이전할 경우 3000~4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10년까지 1조원의 매출액 목표 달성을 사천에서 하겠다며 삼호조선의 사천이전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삼호조선은 1500~1만 7000톤급을 건조하고 있으며, 1600여명의 종업원에 연간 866억 8000만원(2004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시의회 의원간담회

사천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1시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10월중 의원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철 의장의 주재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109회 임시회 일정을 10월 23일

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기로 한 의원 국내 연수는 무기 연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원 국내 연수는 속초에서 서우선 박사의 '의사 회담회' 일정을 10월 23일

# 국악뮤지컬 <정음사> 초청공연



- 입장료 : 무료(초대권배부)
- 출연진 : 100명  
연출/박병도, 지휘/이화동, 작·편곡/최상화, 이화동, 안무/김현철/남주연(도림역)/박성찬, 여주연(월아)/김지영의 정음시립국악단 등
- 작품내용  
먼 길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상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악뮤지컬로 전개.
- 초대권배부처  
SK텔레콤 세영점(834-0170), 해림문고(835-0960), 라데팡스안경 삼천포점(835-6688), 청탑과 인스튜디오(833-8355), 용진당안경원(852-3191), 뮤직랜드(852-7070), 문화예술회관(830-4441)

- 공연일시 : 2006. 11. 5(일) 19: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공연명 : 국악뮤지컬 <정음사>

#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사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사천시 인제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용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특산물관매장 설치,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대방·선구·용감지구) 계속사업승인안 등 13개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가화골포장)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다령골포장)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 장승마을 축제이야기

체험 안내

- 체험일 : 2006. 11. 11(토) 13:00~18:00
- 모집인원 : 150(초·중·고등학생 및 가족단위 3~4인가족)

- 접수기간 : 2006년 10월 25(수) ~ 11월 10일(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접수
- 기타사항 : 토·일요일 접수제외, 선착순 접수 마감

- 프로그램  
1. 체험프로그램  
11. 11(토) 오후 1:30 ~ 오후 5:30  
0. 장승 만들기, 깃발 만들기, 길놀이 배우기, 강강술래 배우기 등
- 2. 장승제 퍼포먼스, 대동놀이 등



■ 문의 및 접수  
사천시문화예술회관(830-4441)

#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동정

## 제3회 대도시 순회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서울사진 전시회



[개막식 테이프 커팅 사진설명]  
원년부터 재정 삼천포향우회 박동욱사무국장(이기호 회장 대신, 늦게 도착), 사천시 신태영 문화관광과장(사천시장 대리참석), 문갑석 재경 사천향우회장, 사천시 지역 이방호 국회의원, [43가보자]운동본부 천봉근 회장, 진중현 서포향우회장, 김인신 곤양향우회장, 재경 서포향우회 직전 회장, 재경 곤양향우회 직전회장, 오른쪽 끝 재경 61생 동기획 정종남 회장

### 1. 개막과 전시 이모저모

우리 고향 사천시지역의 출향인 애향운동 단체인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회장 천봉근)가 주최하는- 제3회 대도시 순회(사천삼천포에 가보자-서울사진전시회)가 10월 10일 11시 30분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다수의 출향인사들이 모여 개막테이프를 자르고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금년에는 사천시의 대방동 과 남해군 창선도를 연결하는 4.3km의 [창선.삼천포대교]가 2006년 5월 건설교통부가 선정하는 전국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당당히 최고대상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이를 서울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자랑하고 알리고자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진 것이다.

사천삼천포지역이 자연경관이 대단히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것은 이미 관련기관의 선정으로 인정된 곳이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몇 년 전에 산림청이 전국의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사천시 정동면 [대곡숲],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9개도를 선정할 [실안노을], 그리고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서 최고대상에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선정하는 콘테스트에서는 꼭 대상이나 상급 등위에 오른다는 것으로 증명된 것이다.

### [첫째 날]

\*개막 날의 관람객 인내는 고향 출신의 59년생 여자 향우를 5명이 맡아 주었다. 이들은 직장도 휴가를 내 가며 어깨띠를 두르고 고향을 설명하고 자랑하는 일에 참여 했다.

고향 사천 삼천포향우들과 문인들이 고향을 알리고 자랑하는 사진전을 한다고 많이 방문하여 수고가 많다고 격려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다.

### [둘째 날]

\*이틀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관계로 매일 오후 5시가 넘어 저녁 때에는 핵실험비 판시위대와 우리 사진전이 한 마당에서 이루어져 대단히 혼란스러워졌다.

\*새 물결 개봉으로 국내 외 관광객이 모이는 명소가 된 청계천광장은 개막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는데, 우리 사진전 중각선에서 본 "삼들과 함께 어우러진 삼천포 대교, 대방진굴항

사계, 정지방 발, 붉게 물들은 노을"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함을 느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셋째 날]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 사무실의 많은 회사들이 식사를 한 후 이곳 분수대앞으로 모여 든다. 손에 든 커피를 마시며 우리 사진전을 관람하고 캐리 캐리 이야기를 하거나 분수대의 물줄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

하늘 맑고 고운이 가을에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안해 진다. 세상일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게 문화국민들이 추구하는 생활 속의 여유일 것이다. 더욱이 한국 최고의 아름다운 도로 사진들을 보면서...

\*이순신연구소장이라는 고향 분은 사진구경을 하고서 수고 많다고 하면서 자기 저서인 책을 선물로 주고 갔다.  
간혹 이런 사진들은 집에 걸어 두어도 좋겠는데 팔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고 하는 분과 관광 안내책자가 첫 날 너무 많이 주었기에 소진되었는데 안내책자를 보내 달라고 주소를 적어 주고 간다.

### [넷째 날]

\*사진 관람객은 전국에서 온 관광객과 주변의 회사원 그리고 일반 서울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향우들도 많이 와서 관람하는데, 선구동과 용현이 친정이라는 아주머니 두 분은 "우리 고향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 정말 더 멋있다"고 하며 좋아 했다.

\*한 중년부인은 저 멀리 독일인 남편과 함께 우리 고향의 사진전을 구경하면서 '내가 프랑스 지중해를 관광차 갔었는데 그 곳이 아

름답다고 유럽사람들이 말했지만 나는 우리 고향이 그 곳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자랑했다. 흥분만 되면 세계 제일의 해양관광지가 된다고" 말했다.

\*아직도 우리 사천 삼천포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느낀 것은 관람객이 안내도우미들에게 "사천이 어디냐?"고 물어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 삼천포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서울이 크고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부산 대전에서는 이렇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5분 동안에 관람하며 지나가는 사람 수를 여러 차례 헤아려 평균집계방식으로 집계했는데 하루 평균 8000여명의 관람객이 우리 고장의 사진전을 구경했다고 추산했는데 서울 사진전 기간 동안 3만여 명이 구경했다.

### 2. 재부 삼천포향우회 정기이사회

재부 삼천포 향우회(회장 장명주)는 10월 26일 7시 부산 동구 조반남 노블리아 웨딩홀(초략역)에서 10월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고문, 자문,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활동보고와 공약한 사무실 개설에 관한 일들을 논의 했다.

### 3. 재부 다우회 월례회 등산

재부 사하지역 향우들의 모임인 다우회(회장 박상호)는 10월 22일 정기월례회를 겸한 가을산행을 가졌다.

이 날 회원들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뒷길을 따라 승학산-구덕산 꽃마을로 행하는 도심속의 산행길을 택했는데 산정에서 보는 넓은 낙동강 구비와 역새풀을 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하루를 보냈다.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 기획홍보팀

# 재울산 사천·삼천포 향우회 현판식



- 일시 : 2006년 10월 10일 19:00
-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6-12이북천 범부사
- 참석인원 : 김정호 재울산사천·삼천포향우회장, 장원길 전 사천향우회장, 송영관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사천정동 출신, 이종완 연합뉴스 울산지사장 등 15명
- 회원수 : 43명
- 재울산사천삼천포향우회 사무국장 문석주

# 단기교양교육 수강생 모집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과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단기 교양반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육과정	운영기간	수강시간	모집인원	교육내용	비고(재료비)
생활요리반	2006. 12. 11~12. 22 (10일간)	10:00~12:00	20명	별미요리 및 어린이 간식만들기	40,000원
풍선아트반	2006. 12. 11~12. 22 (10일간)	10:00~12:00	20명	아이와 함께 하는 요술풍선 및 생일장식	40,000원

- ◆ 모집내용
- ◆ 접수처 :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830-4496~4498)
- ◆ 수강료 : 10,000원
- ◆ 납부 계좌번호 : 농협 839-01-036518(예금주:종합사회복지관) [반드시 수강생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접수 마감 후 수강 적정 인원(2/3이상) 미달 시는 운영이 취소됨
  - 수강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 개강후 수강 취소자에 대해서는 환불 안됨
  - 사천시 인터넷(www.sacheon.go.kr)에서 볼 수 있음.



우리지역 경제 살리는 기업을 찾아⑨>

# 수산물 가공업체 (주)동림

## 새조개, 봉장어, 노랑조개 가공 일본 수출, 2005년 6,807 백만원 매출

주식회사 동림(대표 박진관)은 새조개, 봉장어, 노랑조개를 가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로 2005년 68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박진관(주)동림대표

특히 매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새조개는 남해, 여수, 진해 정정지역의 황토 토질의 수심에서 서식, 모양은 삼각(새) 모양으로 길고 흑갈색이다. 맛은 달고기맛과 비슷하며 회(사시미)용이나, 초밥용으로 일본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제품이다. 요즈음 국내인들도 사브사브식이나 외사비, 초장, 신김치를 곁들여 즐겨 먹는다.

봉장어는 남해안, 흑산도 부근의 청정지역에서 어획한다. 일본인, 한국인 모두 스테미너식으로 선호한다. 통상 양념구이나 장어국으로 즐겨 먹지만, 튀김, 사브사브, 고추장볶음을 해서 먹어도 맛이 탁월하다.

노랑조개는 남해, 거제지역의 물살이 센 지역에서 서식하며, 육질이 탄탄하며, 노랑색이다. 화용이나, 초밥용으로 일본인들이 선호한다. 사브사브, 외사비, 초장을 곁들여 먹는다. 사천시 대방동 765-1번지 소재하는 주식회사 동림은 수산물가공업계의 박사인 박진관 대표가 동종업계에 15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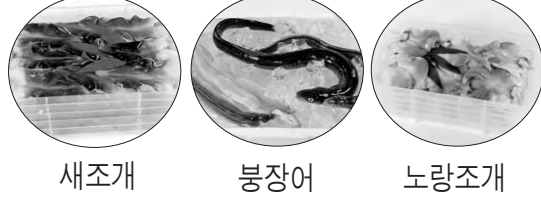


1월 동림을 설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림에서 가공되는 생산품은 건실한 수출 바이어의 다수 확보로 자사 브랜드가 일본 시장 내에서 우수상품으로 이미지가 정착된 상태이며,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 주력업체로 지정받았다.

박진관대표와 직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96년 11월에는 무역협회 1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앞으로 우수 품질의 상품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조개 봉장어 노랑조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동참합시다!!

## 시민여러분의 관심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 소나무를 살립니다!

### □ 소나무재선충병이란(생활사)



- 소나무재선충병은 실처럼 가늘게 생긴 미세한 재선충(0.6~0.8mm) 소나무의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에 기생하며 이동함
- 재선충이 일단 소나무에 침입하면 1살이 20일 후에는 20만마리로 급속히 증가하고,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게 됨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6일후에 잎이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고, 감염 20일후면 잎이 시들기 시작하며, 감염 30일후에 잎이 급속하게 붉은 색으로 변색되면서 죽기 시작
-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우리시는 2000년 축동면 사다리에서 발생해 전염면동(동서금동 제외)에 확산해 피해를 주고 있음

### □ 2006 방제성과 및 추기계획 [방제성과]

- 모두베기에 의한 재선충병 방제 도내 처음 시행 - 타 시·군의 모두베기 사업지 견학장으로 선정(경남도)
- 훈증, 파쇄, 소각 방제방법의 다양화 - 일률적인 훈증방식에서 파쇄, 소각방제로 전환, 방제방식 개선으로 피해확산 저지에 기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춘기 중앙평가시 우수시로 선정 [추기방제 계획]
- 집단발생지 모두 베기사업 시행(축동, 곤양, 남양)

- 추가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 실시설계구역(10~11월) 후 피해목 제거
- 피해목 방제산물 산업화 재활용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MOU)체결
-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실시(대곡숲, 다솔사 주변)
- 주민 협조 및 당부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 할시에는 적극 신고
- 재선충병 발생지내에서 굴취 된 소나무는 조경수 등으로 사용 금지
-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기존 훈증목 뿔감용으로 사용 금지 - 재선충병 서식처 제공
- 묘지, 농경지 주변의 소나무를 고의적으로 고사(박피)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찜질방 등)피해목 반입 및 취급 일체 금지
- 재선충병의 솔껍질깎지벌레, 푸사리움가자미류병이 혼재해 있음
- 솔껍질깎지벌레(와룡산 일대), 리기다푸리움가자미류병(각산 및 와룡산 일대)
- 리기다소나무는 재선충병과는 무관함
- 산림 내 소나무 잎이 붉게 진행되면서 죽고 있을시 사천시(녹지공원과)에 신고(830-4706)

# 시정 밖 소식

## 삼천포중앙라이온스클럽 도서지역 의료봉사활동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지구 삼천포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준수)이 『열정과 아름다운 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에 봉사하러 한다는 전 회원들의 하나같은 뜻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관내 유인도서인 신수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소외되기 쉬운 도서 주민 200여명에게 의료 혜택을 줬다.

이날 봉사활동은 한미음병원, 삼천포내과, 동양한의원, 김치과 등 40여명의 의료진의 후원을 받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또한 동양전력전기안전기술단, 남일택시 및 삼천포제일가스 등 관련 업체직원 10여명과, 클럽 회원 및 가족 60여명이 함께 전기안전점검과 농기계 수리 및 바다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해 지역민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 동서동 외출낙시회



'97년 창립 어민 40여명으로 구성된 동서동 외출 낙시회(회장 이명근·56)는 바다청소, 어민고기 안잡기 및 계도 활동,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 외출낙시회는 지역특성상 바다와 연계된 단체로 삶의 타전인 16개 유무인 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회원들의 소묘선박을 이용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단체이다.

주요 활동 상황을 보면 설, 추석 명절에 교통이 혼잡한 서부시장 주변의 교통지도 활동과 건전성 상행위를 위한 노점상 단속도 펼쳐오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세대의 자활의식 고취를 위한 이웃돕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앞장서 오고 있다.

## 주제별 도서전으로 인기

삼천포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감동 주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주제별 도서전을 정기적으로 열어 이용자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9월 독서의 달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서치료 관련도서를 도서관 현관에 전시해 힘되고, 외롭고, 우울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10월 문화의 달에는 '자녀교육' 관련 도서전을 열었으며, 앞으로 '어린이 성교육', '제테크(부자되기)', '우리 전통문화 알리기' 관련 도서전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사천시

KBS 1TV "TV쇼! 진품명품"에서 사천시민들의 의뢰품을 대상으로 출장감정을 개최합니다.

현장 MC 김중국과 그림, 글씨, 도자기, 민속품, 전문감정위원들이 함께 합니다.

사천시민들 중 고미술품(도자기, 그림, 글씨, 민속품 등)의 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개별 감정을 해드리니 많은 성원바랍니다.

- 촬영일시 : 2006년 11월 8일(수) 오후 1시 예정 (약 2시간 소요예정)
- 촬영장소 : 사천문화원 강당
- 문의사항 및 접수 : 사천문화원 담당자 공대원 / TEL.833-3163

## 김은정 시인의 첫 시집 『너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출간



김은정 시인의 첫 시집 '너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천년의 시작)이 출간됐다. 삼천포고등학교 교사인 김은정 시인이 1996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후 10년 만이다. 새로운 문법의 언어 표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은정 시인은 10년이란 긴 시간만큼 시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제목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시인은 자신만의 문법으로 함축된 시어들로 독자들이 시를 읽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한다. 시에 자주 등장하는 시공간은 '바다'와 '저녁'이다. 이 시공간은 함께 어울려 종종 개별의 노을을 만들어낸다. 곧 '바다'와 '저녁'이 등장하지 않는 시에도 노을의 느낌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분위기는 김은정 시인이 타고 자란, 그래서 시가 태어나는 배경을 암시한다. '간이 아파드는 말/애간장이 녹는다는 말/모두 너무 함부로 쓴 화살이었다/어머니는 그런 화살을 아무에게도 쏘지 않고/스스로 화살통인 채 꽃으로 폼으로써/어머니의 간은 수런처럼 피고름 위에 떠 있다//' (수련은 피고름 위에 떠 있네)중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우 전우 돕기



육군 제 39보병사단 사천대(대대장)이배인 중령, 학군 26기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우 전우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대에서는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조하여 쌀, 라면 등 생필품 및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사천시의 협조하여 생계가 곤란한 병사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우전우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울러 부대는 자체적으로 '매달 5천원 기부운동'을 펼쳐 불우전우에게 5만원씩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예비군 지휘관들 또한 불우병사들이 안정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사를 지어 먹이는가 하면 퇴근시 집까지 배려해주는 등 부모와 같은 세심한 관심을 쏟고 있다.

사천라이온스클럽(회장 김중환)에서는 부대를 방문하여 쌀 220kg, 라면 11박스, 국수 11박스를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군 복무하는 전우들을 격려했다. 삼천포교회, 산호태리클럽(회장 박유순), 천일주유소(대표 진두상)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불우전우와 지매결연을 맺고 지난 10월부터 매월 5만원씩 전액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한미음병원 이인관 부원장은 쌀 100kg을 기탁하여 지역사회와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대대장이배인 중령은 "생계가 어려운 병사들과 상담을 해보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지역 기관단체들과 지매결연을 추진하여 불우병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부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ABF 여성초영농조합법인 수제 감잎차

고(高)비타민, 당뇨나 비만어린이에게 좋아



최근에는 웰빙족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어느 때보다도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지역 사천시 일원에서 재배되는 단 감잎을 이용한 수제 감잎차와 이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 제품에 성공한 업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잎차는 기능성 식품 개발에 모든 식물류 가운데 비타민을 가장 많이 함유(감잎의 10~14배 : 감잎100g 60mg ~ 100 mg 감잎차100g당 약 1천460 mg)하고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이노작용에 도움이 된다. 또한 피를 맑게 해주며 당뇨병에 좋은 차로 알려져 있다. 다른 차에 비해 카페인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 비만인 어린이들에게도 알맞고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좋은 차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차에 비하여 향미와 색택이 떨어져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 되 왔다고 한다.

ABF 여성초영농조합법인은 우리 지역 작물 경영능 저변이 가장 확실하고 그 규모가 대량생산에 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작목임에도 현 농촌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방치되는 과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안타

깝게 생각하였으며, 이를 활용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 농업 기술 센터와 합동으로 1년에 걸친 연구 실험 끝에 (소장 김치영) 전제적인 맛이나 향, 색, 관능적 특성 등이 일반 차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전통적 수제 감잎차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4월 초순 첫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진 통적인 방법으로 수제 감잎차를 만들다보니 잎기 불순으로 채취를 못하는 날과 가장 좋은 잎을 채취할 수 있는 짧은 일정이 많은 감잎차를 만들 수 없는 애로가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설 현대화로 극복 할 것이라고 하며 농업부문에 서는 인증 받기가 힘든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외국계 HACCP 인증 및 경상남도 품질인증인 QC 마크를 획득 하였으며, 본격적인 감잎차 생산을 위해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지원을 받아 사천시 이출동에 공장을 설립 중에 있다.

여성초영농조합법인 감잎차 외에도 뽕잎차, 여성 초진액, 여성초액상차, 여성초미용비누, 다량녹차 티백, 다량 여성초차 티백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한편 여성초는 여러해살이풀로 요도염, 방광염, 자궁염, 폐렴, 축농증, 치루, 탈출, 약창 등 염증질환을 비롯해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해독작용도 강력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안중기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성초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것이며,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기호성이 좋지 않으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저희 조합원들은 최선의 제품을 생산해 나가는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연락 : 안중기(055-832-3858)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참가



한국폴리텍항공대학은 2006사천항공우주엑스포(10월 18일 ~ 22일)에 참여해 항공특성화 대학으로서 청소년들과 관람객들을 위해 항공과학교실(비행원리교실, 사이버조종교실, 비행기제작교실), 종이비행기 날리기 교실, 초경량 항공기 체험교실 등 총 10개의 항공체험 부스에서 체험 행사를 운영했다. 한국폴리텍항공대학은 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참여를 통해 사천시 유일의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토요일업일 프로그램 안내 및 회원모집

사천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토요일업일(매월 2.4주 토요일) 및 주40시간 근무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사천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장소 : 1층 아동자료실 / 3층 종합자료실
- 신청방법 : 선착순(전화방문 및 직접신청)
- 수강료 : 무료(단,재료비 본인부담)
- 모집기간 : 10월 말 ~ 12월 8일까지
-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대상	시간/모집인원	내용	재료비
making a book (입체북 만들기)	초등3-6	10:00-11:50 /20명	다양한 주제와형태로 이루어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입체북만들기	3000원
가족과함께하는 풍선아트	누구나	10:00-11:50 /20명	풍선으로다양한 모양만들기	4000원

□문의사항 : ☎ 852-4552(사천도서관) 두 강좌 모두 신청하세요 됩니다. 회원모집 결과 10명이하하면 폐강합니다.





<우주항공소년포록의 항공이야기 (35)>

### 일본 곡예비행팀 블루임펄스(Blue Impulse)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Black Eagle), 미 공군의 썬더버드(Thunder Birds), 미 해군의 블루엔젤(Blue Angels)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세계적인 곡예비행팀 중에서 일본 자위대의 블루임펄스(Blue Impuls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각국은 곡예비행을 전담하는 특수비행팀을 운영하면서 자국의 항공기술과 자국항공기를 홍보하고 있다. 썬더버드(Thunder Birds)는 F-16을, 블루엔젤(Blue Angels)

은 F/A-18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블루임펄스는 자국에서 개발/생산한 T-4 항공기를 운용 중이다. 블루임펄스는 창설 당시엔 F-86을, 1983년부터 1995년까지는 자국산 항공기인 미츠비시사의 T-2 초음속 제트훈련기를 도입해 운영하다가 현재는 8대의 가와사키사의 T-4 고등훈련기를 운용하고 있다.

고등훈련기 T-4는 항공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T-33A 및 T-1 대신에 1990년대

이후의 비행교육 및 비행훈련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81년부터 방위청에서 개발 착수, 1987년 말 비행시험 완료, 1988년 7월 사용승인을 거쳐, 1988년 말부터 T-4의 양산이 진행됐다. T-4는 일본의 제트 훈련기로서 비행기의 제트 엔진과 각종 항공 전자 부품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생산된다. T-4는 1988년부터 일본 자위대에 사용되었고, 블루임펄스는 1995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T-4항공기는 아음속의 저속에서 좋은 안정성 및 기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T-4의 최대속도는 유사한 훈련비행기보다 빠른 Mach 0.9이다. 주 날개의 틸트 모양은 "Dog tooth"라고 불리고, 이것은 작은 날개 끝에 기류 안정성을 증가하기 위해 작은 와동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항공자위대의 편성은 우리의 공군작전사령부에 해당하는 항공총대와 항공지원단, 항공교육집단, 항공개발실험집단, 보급본부의 5개 주요 사령부급 부대와 기타 법으로 정하는 직할부대와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블루임펄스 특수곡예팀은 항공교육집단 산하의 항공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항공교육집단은 T-1, T-2, T-3, T-4 등 각종 훈련기를 배치해 비행교육뿐 아니라 각종 병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김형래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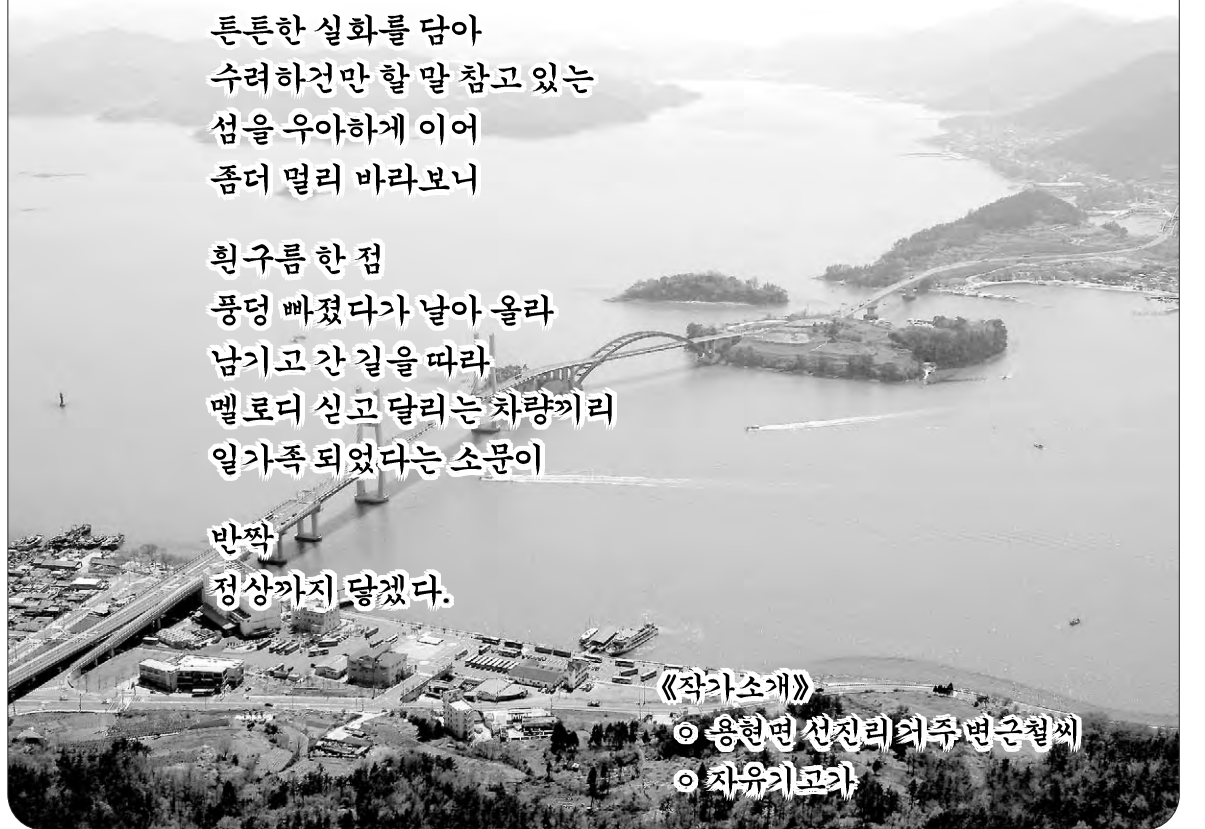
### 사천남해안 연륙교 아래에서

물살 일렁일 때마다  
화창한 은빛이랴  
유영하는 갯바람을 타고  
누가 오고 있다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튼튼한 실화를 담아  
수려하건만 할 말 참고 있는  
섬을 우아하게 이어  
좀더 멀리 바라보니

희구롭 한 점  
풍덩 빠졌다가 날아 올라  
남기고 간 길을 따라  
멜로디 실고 달리는 차량끼리  
일가족 되었다는 소문이

반짝  
정상까지 닿겠다.



《작가소개》  
○ 용현면 선진리외주변운철씨  
○ 자유기교가

### 사천땅 테두리를 따라

## 사천시 경계종주(境界縱走)(8)

봉명산 서봉암 위에 있는 봉바위



긴 여름을 보내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았다. 수확을 앞둔 긴장 속에 태풍 "산신"은 산산이 부서져 다행스럽게도 싱겁게 지나가고 가을 하

늘이 무척이나 높고 푸른 날! 오랜만에 사천땅 종주 길에 올랐다. 이른 아침 찬 공기를 가르며 시경계가 되는 하동군 북천삼거리에도 착하니 코스모스꽃잎이 펼쳐진다. 하동군내의 지방도를 연결하는 이 코스모스 꽃길은 하동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됐다. 북천삼거리에서 곤양천을 지나는데 아교 다리를 건너면 밤나무 산으로 시경계는 이어진다. 왼쪽 산자락(곤양면 초랑리 535번지)에는 폐비닐 재생공장인 의승엔텍(대표 장춘권氏)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2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폐비닐을 수집해 하수구 흡관 등을 생산하는 2종의 효과를 가지

고 있다.

밤나무 밭 가장자리를 따라 산길을 오르던 발아래로는 경전선 옥정터널이 지나고 때마다 북천역을 출발(07:09발)하는 진주행 통근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난다. 정겨운 풍경이다. 잠시 후 밤나무 밭을 지나면 산길은 아예 흔적도 없이 잡목과 가시넝쿨로 진행이 어렵다. 이따금 만나는 산소주변에는 별조길이라 하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 깊은 산중에도 만나는 산소마다 말끔히 손질이 잘 돼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반목(反目)과 질시(嫉視)의 세상에서도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조상을 섬기는 정신만은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잡목을 헤치며 고도를 높이면 웬 산중에 휴게시설이 있고 다시 산정에 오르면 봉바위(사진)를 만난다. 봉바위 아래 10여분거리에는 서봉암이 있는데 시경계와는 무관하게 서봉암에 들렀다. 조용한 산경에 자리한 암자가 아담하고 정갈스럽다.

여기서부터는 등산로가 잘 다듬어져있고 사천사에서 설치한 등산로 이정표도 세워져있다. 봉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산악회의 리본도 달려있다. 등산로를 따라 400m고지에서 오른쪽 이명산과 봉명산으로 이어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바로 곤양과 곤양 하동 북천면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아래는 보안암이 있고 좀더 내려가면 봉명산 다슬기가 있다. 다슬기는 신라 지증왕 4년

(503년)에 연기조사가 창건한 고찰로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탑과 적멸보궁을 비롯해 웅진전, 극락전, 대양루와 보안암 석굴등 사천시 제일의 사찰로서 사천팔경에 하나다. 특히 대양루는 108평의 2층 맞배집으로 1974년 2월 16일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다슬기란 절 이름은 흔히 이 절주변에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절의 주산의 대장군이 앉아있는 형상으로 많은 군사를 거느린다는 뜻에서 다슬(多率)이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이제 28여km를 달려온 곤양면을 지나 이제

는 곤양면이다. 가화강을 건너서 잠시 만났던 곤양면을 다시 만난 것이다. 곤양면은 곤양현으로 한때 진주에 속했다가 세종 원년에 남해현을 합해 곤양군으로 승격됐다. 고종 32년에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하면서 사천군으로 편입되었다가 이듬해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개편할 때 곤양군으로 회복됐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군면 폐지분할에 따라 사천군으로 병합될 때까지 조선조 500년 동안 10개 면을 관할하는 곤양군의 중심지였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곤양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긍심을 갖고 있다

3개면 분기봉에서 봉명산을 뒤로한 채 급경사로 내려서면 1005번 지방도가 지나는데 고개로 서 사천시와 하동군의 이정표가 시군경계임을

말해준다. 도로를 건너 급경사 뒤편을 올라 서면 이명산이다. 이명산(570m)은 사천시에서 와룡산(798.6m)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산으로 시경계선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다. 정상에는 경남정보교 OB산악회에서 세운 정상표지석이 있는데 이명산 상사봉(理明山 想思峯)이라 적고 있다. 사방으로 막힘이 없이 전망이 좋고 지리산 능선도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사천앞바다도 펼쳐지고 삼천포대교도 희미하게 보인다. 산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사천땅 끝까지 단숨에 달려갈 것 같기도 하다.

이명산에서 서북쪽 700m 아래에는 마애석조여래좌상(유형문화재 제136호)이 있다. 자연 암벽에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아미타여래를 표현한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잠시 마애석불을 답사한 뒤, 다시 이명산 정상에서 시경계는 남쪽으로 직진한다. 이제 하동쪽은 북천면을 벗어나 진교면으로 접어들고 사천시경계가 끝날 때까지 사천시와 함께한다. 정상에서 내려서면 한동안 전망과 함께 그려다로 양호한 산길로 이어지다가 임도를 지나고 부터는 산길은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촉백 나무조림지를 지나 절개지를 내려서면 20번 도로가 지나는데 진동고개에 도착한다. 이제 사천시 경계종주도 한 구간을 남겨둔 채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춘다.

/조만중 · 사천농협

### 밤 줄기 체험

하늘이 높고 말이 살핀다는 가을을 맞아 들뜬에는 오후백과가 결실을 맺는다는 데 도시에서는 정겨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가 어렵다. 외곽으로 나가면 알뜰이 익어 고개를 숙인 벼 이삭을 보고 감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나그네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일상의 생업에 매달린 처지에서 쉽사리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난번의 신문에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밤을 따고 주울 수 있는 체험농장을 소개하는 기사가났기에 유심히 봐 놓았다. 밤 줄기 체험을 위해 일출을 잡아 두 아이를 데리고 참석했다. 자동차로 한 시간 가량의 거리인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밤 농장이었는데 밤 밭의 입장이 어른 한 명당 5천원이었고 아이들은 무료였다. 능력껏 밤을 수확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가족과 어릴 적의 추억을 되새기며 열심히 밤을 줍고 왔다. 간혹 밤송이 가지가 손가락을 찌르고 무성할 익새풀이 손등을 간지럽혔지만 잘 여문 알밤을 찾아 내 줍는 기분은 좋았다. 아이들도 알밤을 찾아내 손으로 쓴다는 신기하고 재미있었던지 연신 탄성을 질렀다. 밤을 사서 먹다가 직접 밤나무에 매달려 이를 벌리고 해해 웃는 밤

을 보니 나도 기분이 흐뭇했고 가을의 기분을 유감없이 만끽할 수 있었다. 정성없이 밤을 수확하다 보니 뱃속이 출출해 시간을 보니 점심때가 됐다. 우리 가족은 적당한 곳에 자리를 깔고 싸간 도시락과 음식을 먹었다. 밤 줍는 노동을 하고 먹는 점심은 꿀맛이었다. 아이들도 집에서는 밥투정을 하다가 야외에서 먹는 밥은 맛있었는지 평소의 두 배를 먹었다. 점심을 먹고 조금 더 밤을 줍다 밤나무 밭을 철수했다. 남편은 입장료를 냈으니 좀더 줍자고 했지만 입장료만큼의 밤을 수확했고 다른 사람의 뒤통도 좀 남겨놓아야 한다는 나의 설명을 듣고 농장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주인은 많이 주우셨다며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까지 했다. 가족 내 명이 수확한 밤은 다섯 되 가량 되는 듯했다. 돌아와 이웃에게도 좀 나눠주니 매우 좋아하며 다음에는 같이 가자고 신신당부를 했다. 컵밥은 날로 먹고 집은 갈색으로 익은 알밤은 굵거나 삶아 먹으니 맛이 일품이었다. 아이들은 과자는 제대로 나눠주고는 기분 좋게 돌아왔다. 아이들은 과자는 제대로 나눠주고는 기분 좋게 돌아왔다. 아이들은 과자는 제대로 나눠주고는 기분 좋게 돌아왔다.

/이옥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 낙시 유감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낙시관리제 도입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의 면허제나 허가제보다 낮은 등록제나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물고기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오염을 방지한다는 명분이다. 종전에 없던 제도가 갑자기 생김으로써 취미와 여가선용으로 낙시를 즐기던 강태공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찬성하고 싶다.

낙시터에 가보면 가관이다. 술병, 음식찌꺼기, 미끼, 낚령이 추, 영긴 낙시용 실, 초고추장 등 쓰레기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더럽다. 낙시인들의 자연보호정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더군다나 물에 빠뜨린 낚령이 추는 수은이나 카드뮴 등과 더불어 매우 해로운 중금속이고 잡아서 죽어 썩은 물고기는 악취를 풍기며 강산을 오염시킨다. 휴식으로 낙시를 즐기던 사람들의 뒤처리는 결국 귀중한 세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미 수거된 쓰레기는 장기간 방치돼 명산대전을 심각하게 더럽힌다.

특히 요즘은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낙시터를 자주 찾는다. 물고기를 낚는 건지 세월을 낚는 건지 모르지만 낙시대를 드리우고 앉아 시간을 보내고 삶의 여유를 찾으며 또한 갖 낚은 싱싱한 물고기로 회를 떠 아주 삼아 소주 한 잔 걸치는 맛은 일품이었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의 처지도 헤아려야 한다. 낙시인이 늘면서 낙시터의 환경은 오염이 극에 달해 있다. 옛말에 말로 해서 안 들으니 매를 듣다고 했듯이 낙시인들에게도 말로 안 되니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강과 저수지와 바다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당국은 신속히 낙시관리제를 도입해 낙시인들을 교육시키고 소량의 수수료를 받아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하천 정화활동을 벌여야 한다. 낙시인들 스스로가 공동체력을 지키지 않은 결과이다. 낙시인들이 저지른 미성숙한 환경오염 행위에기에 당국에서 낙시터를 관리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의 금수강산이 아름답게 유지돼 후손이나 다른 동식물들도 천혜의 자연을 누릴 혜택을 줘야 한다. 낙시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인류의 삶을 보호해야 하겠다. 아울러 낙시용 낚령이 추도 사용을 금하고 풀이나 기타 자연에 무해한 재질의 추를 만들어 사용하게끔 제도의 정비

가 시급히 뒤따라야겠다.  
/박정도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 삶의 길잡이 명심보감 ②

###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原文 : 太公 이曰, 孝於親 이면, 子亦孝之 하나니, 身既不孝며, 子何孝焉 이리요, 태공이 말했다.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기 자식도 역시 자기에게 효도 할 것이다. 이 몸이 이미 못했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기를 바랄 것인가?」. 그리고 효경(孝經)에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지 않다고 했다.

당나라 고종이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식탁 위에 많은 음식과 먹음직한 포도송이가 놓여 있었는데 시종만은 포도에 손을 대지 않기에 고종이 이상하여 물었다. 그러자 시종이 말하기를 지금 병중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포도를 먹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사드리지 못했는데 어찌 제가 먼저 먹겠느냐고 했다. 왕은 그의 효심에 감복해서 거기 있던 포도를 모두 쥐 시종을 치하 했다고 했다.

지금부터 35년 전, 1871년 1월 22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 날은 음력으로 신달 그믐날이었다. 내일이면 음력 설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다. 아버지와 재수는 조부모님께 세배하고 재수를 모실 것을 생각하니 빨리 가고 싶었다. 어머니는 날씨도 안 좋고 눈도 오는데 내일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재수 아버지는 하루라도 빨리 가 아한다고 하면서 재수를 재촉 하였다. 아버지와 재수는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한 후에 집을 나섰다. 얼마를 걸어가자 어둠이 깔리고 눈은 점점 함박눈으로 바뀌면서 힐 사이 없이 내렸다.

“재수가 좀 더 부지런히 걸어야 되겠다. 길이 험한데 해까지 지는구나.” 하시면서 재수를 재촉했다. 눈은 쌓여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헤치며 힘 되

게 걸었다.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아버지는 재수를 업고 내리막길에 끝나는 곳에서 재수를 내렸다. 눈은 그칠 줄도 모르고 알뜰하게 내리고 있었다. 고갯길을 오를 때면 아버지는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너무 고된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몇 발 못가서 미끄러지면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못했다. 재수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려 했다. 재수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 드렸다. 재수는 추위도 모르고 목이 터지도록 사람살려 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깊은 산골 어둠속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아버지의 몸이 차츰 식어 가고 있었다. 재수는 흐느끼면서 아버지를 부둥켜안았다. 자기의 몸으로 식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였다. 재수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불렀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길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어린 자식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애절한 소원을 들어 주지 않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재수는 눈 속에서 아버지를 부둥켜안은 채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그 후에 재수의 효성스러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재수의 명복을 빌었다.

지금도 서울 어린이 대공원과 재수가 다니던 전라북도 상주군에 있는 서산 초등학교에 ‘충효탑’이 우뚝 서 있다. 이 충효탑에는 다음의 시가 새겨져 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적신다.

험한 산길은 눈 속에 향기롭게 핀 한 송이 꽃. 그 옥한 향기 온 누리에 풍긴다. 길이 먼단다. 어린나 이로 아버지를 위해 불살라 버린 가혹한 꽃송이.  
/김형태 · 사천읍 정리의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본내실 곳 : 사천시청 기획담당관실 공모담당  
팩스 (055)830-4219  
이메일 : gongbo@e4000.net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작성 시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천읍

사회단체 국토대청결 운동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사천읍 사회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회장 채경문)와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박판도), 사천읍사무소(읍장 김영태) 직원 등 70여명이 모여 지난 9월 28일 관내 일대에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지난 9월 27일 사천읍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임두약)에서 자식 없이 홀로 살고 있는 평화리 소재 백두이 어르신 외 2세대에 도배, 장판 교체 및 지붕 수리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정동면

학촌마을 주민 공원조성 나서



학촌마을 주민들은 북쪽에 숲을 조성해 마을의 역운을 막아내고, 또 여름에는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원조성에 나섰다.

조성된 공원에는 평상시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여름 피서철에는 많은 외래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대해 배구장, 족구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 시민에게 편안하고 인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품질기술원 사천센터 영광마을 위문

국방기술품질원 사천센터(센터장 이재화)는 지난달 4일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003년부터 결연을 맺어왔던 영광마을(한센병 집단거주지역)을 방문, 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사남면

이웃사랑운동 전개

사남면자원봉사협의회(회장 정덕순)에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7년여동안 노인양로시설인 삼수원을 월 1회(매월 셋째주 목요일) 방문해 목욕봉사 및 세탁봉사 식사수발 등으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용현면

어려운 이웃세대 도배봉사

용현면 자원봉사회(회장 임분남)는 지난달 21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장판 교체 및 도배봉사를 실시했다. 10명의 회원이 참가해 생계가 어려워 오랫동안 불편하게 생활했던 용현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각각 1세대씩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를 실시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용현면은 지난 10일 용현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차량운행이 증가 될 것에 대비해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교통사고를 잘 지켜 문화시민이 됩시다', '우리모두 교통질서를 준수합시다' 등을 홍보했다.

축동면

어려운 세대 위문

축동면 소재 탑리공단협의회(회장 황철용, 진산군속 대표)와 축동면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순분)에서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의지할 곳 없이 오직 정부의 생계보조에만 의존한 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5세대)을 위해 평소 제공하고 있는 밑반찬뿐만 아니라 각종 세수용품(조기, 돗, 민어 등 - 환가액 200만원)을 정성껏 마련 전달했다.

또한 축동면 탑리 768-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광성(대표 성근자) 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20박스(50만원)를 기탁했다.

곤양면

사랑나누기 면민노래자랑

곤양자율방범대(회장 강만수)주관으로 지난달 6일 곤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9회 사랑나누기 면민노래자랑』을 개최해 고향을 찾은 출향인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고향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곤양자율방범대에서는 매년 추석절마다 면민노래자랑을 개최해 그 수익금 전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들의 장학금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이상 자율방범 활동과 청소년 선도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 생활의 안전지킴이는 물론 힘을 때 기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동하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모범이 되고 있다.

이웃돕기 사랑 펼쳐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들이 줄을 이었다.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인 명진기업(대표 김택세)이 백미 200kg을 독거노인 20세대에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을 시작으로 곤양주유소 최재권 대표가 백미 150kg, 곤양면 의용소방대(대장 최봉천)가 백미 200kg와 식용유 10세트, 곤양면 적십자봉사회(회장 조남수)가 백미 150kg를 지원해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웃 총 57세대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곤명면

쓰리기쁨나눔터 온정의 손길 펼쳐

곤명면 9개 자생단체, 곤명면이장단, 곤명농협과 일부 뜻있는 면민들이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2001년도에 조직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쓰리기쁨나눔터(회장 김구제)에서 어려운 가정 30가구에 15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추석의 기쁨을 같이 했다.

녹차가공 공장 기공식 가져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동양 최대의 녹차단지인 우리면 금성녹차단지(47.7ha)내에 녹차가공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석훈 부시장, 이창호 법안대표, 곤명 농협장, 시의원, 곤명면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공식을 축하했다.

녹차단지 내에 건립되는 가공공장 규모는 건축면적600평으로 건축물은 연내준공예정이며 2007년도에 녹차가공기계를 도입해 내년부터 녹차완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서포면

면민 노래자랑

민족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포사랑 청년회(회장 백승국)에서 주관하는 서포면민 노래자랑이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노래자랑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이들과 면민 400여명이 한데 모이는 화합의 장이 됐으며 시골 장터 운영과 행운권 추첨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참여 주민들의 흥을 돋웠다.

한마음 축구대회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5일 서포 한마음 축구클럽 회장배(회장 백인홍) 축구대회가 열렸다. 서포 전역을 6개 팀으로 나눠 하루 종일 진행된 이 대회에서 구랑·조교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선전리 팀이 준우승을 했다.

동서동

새마을단체 이웃사랑 운동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서동 새마을단체에서는 지난 9월 29일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 해 36포대(20kg 34포대, 10kg 2포대)를 마련해 관내 어려운 36세대를 선정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으며,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경로당 16개소를 찾아 포도, 법주, 사탕(총 110만원상당)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정성스런 손길로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 운동에 힘썼다.

동서동사무소 준공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



지난달 17일 동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동사무소 준공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이 김승영 시장님을 비롯한 각급기관단체장과 시의회 의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천시 서동 272-4번지에 지난해 10월 19일 착공해 지난 7월 11일 완공된 동사무소는 1207㎡ 부지위에 연면적 1024㎡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동사무소와 민원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대회의실 및 예비군동서동대로 사용된다.

선구동

어려운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이어

추석절을 맞이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선구동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김경호(방위협의회원), 박병곤(11동 새마을지도자)회원이 백미 60포(10kg), 선구동 이웃사랑회 및 정미면(사천읍 보물섬운영), 이종초(삼수가잡고 맛나기쌀고 운영)회원이 백미 25포(10kg), 김기열(선구동 58, 31세 부부봉사단운영)씨가 백미 15포(20kg), 농협중앙회 삼천포지점에서 백미 30포(20kg)를 기증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제공,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줬다.

『선구동등산학교』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선구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등산학교(회장 이대수)의 2회차 등반이 성황리에 이뤄졌다. 지난 9월 24일 등산학교 회원 등 40여명은 오전 8시에 동사무소를 출발, 10시에 거창 우두산에 도착해 간단히 몸을 풀 후 등반에 올라 고건사를 거쳐 해발 1046m의 우두산의상봉에 이르렀다. 이번 등반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참여,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고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서로 이끌어 모두가 정상에 이르는 알찬 산행이 됐다며 모두가 흡족해 하고 있다.

자매도시『남원시 도동동』 주민 초청 항공엑스포 등 견학

선구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집세)는 지난 달 19일 자매결연도시인 전북 남원시 도동동 주민을 초청했다. 이날 도동동에서는 시의원, 통장, 단체장 등 40여 명이 선구동을 방문해 송원기에서 상견례, 특산품교환 및 중식을 마친 후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장으로 이동해 에어쇼, 3D영상관 및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16시경 귀가 길에 올랐다.

발과 항공축제 등을 둘러보고 사천의 발전상에 놀랐으며, 행정시책을 벤치마킹하는 좋은 계기와 함께 형제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였다.

이웃사랑회 생필품지원 활동 펼쳐

선구동 자원봉사단체인 이웃사랑회(회장 박윤립)에서는 지난 달 12일 저소득층 2세대에게 생필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수혜자들이 주위의 따뜻한 관심에 가슴 깊이 감사하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이웃사랑회는 생필품 지원 활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작은 희망이 된다니 기쁘다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동서금동

클린 동서금동 만들기



지난 9월 29일 추석을 앞두고 동서금동에서는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에게 『클린 동서금동 만들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추석맞이 환경정비 운동을 개최했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새마을남·여 지도자협의회 등 전 조직단체원 100여명이 함께 서금대리시골터, 삼천포천 풀베기 등 지척 방치되기 쉬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클린 동서금동 만들기』를 주민 주도적 행사로 이끌어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독거노인 목욕 자원봉사 활동 펼쳐

동서금동자원봉사협의회(회장 박상순)에서는 지난 달 13일 자원봉사자 회원 10명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정소악 외 15명과 함께 부곡운천(창녕군 소재)에서 목욕봉사를 실시, 이날 자원봉사회원 1인이 노인 1인에 대한 책임 목욕봉사를 행해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의 자진 심신을 위로해드리고 회원들은 참다운 봉사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벌용동

자연보호 경진대회 성공적 개최



자연보호벌용동협의회(회장 황일명)에서는 지난 달 25일 와룡산 일원에서 12개단체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당일 행사에는 자연보호의 당위성 홍보에 역점을 두고 벌용동의 전 조직단체원과 주민들이 참여해 자연사랑을 인식하고, 와룡산 환경정화와 단풍나무 시미로 자연보호 분위기 파급에 기여했다.

벌용동은 앞으로 와룡산 진입도로의 환경정비, 생활 주변 공한지 꽃밭조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등 자연사랑을 확산해 시민들에게 도심지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반에서부터 시작되는 혁신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조직단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혁신이 시작된 것이다.

벌용동 제25통(통장 이경애)에서는 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부녀회장과 반장이 모여 매월 통 관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가정형편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중학생 2명에 대해 지원하여 사기를 북돋웠다.

또한, 벌용동 제18통(통장 손행순)에서는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주민 10여명이 모여 청소계를 하고 있다. 계를 통해 환경정비를 비롯한 주민단체와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어 다른 통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최일선이자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통·반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와 혁신의 물결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꾸준한 봉사로 노인복지 실현

용강동에 소재하는 신광제과(대표 김성원)에서는 10년 전부터 매년 명절에 20여명의 독거노인과 10개의 경로당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과자를 기탁해 오고 있다.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봉사와는 달리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며, 꾸준한 봉사로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노인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어 주위에서는 "이끼주의화된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과자 봉지 속에 담겨진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노인에게 전하는 것이다"며 평했다.

항촌동

주민자치위원 광주 총장로 축제 초청 참관

항촌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효경)위원 8명은 자매결연지인 광주 동구 총장로축제 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지난 달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행사 개막식에 참여했다. 광주 동구 제1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난해 5월 4일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활성화와 유익적인 협조체제로 우의를 다져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지역의 축제기간에 많은 회원들이 초청 방문했으나 이번 축제는 우리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기간과 일정이 겹쳐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단만 방문하게 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온정의 손길들...

추석을 맞아 항촌동 자원봉사회(회장 최연순)는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등 17세대를 찾아 손수 만든 밑반찬과 세수용품, 쌀을 들고 방문해 안부를 묻는 등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새마을협의회(회장 장영길, 하정애)도 어려운 이웃 15세대를 찾아 백미 20kg 15포를 전달, 남동발전에서는 관내 경로당 7개소에 과일 28박스를 전달하는 등 경리 불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온정의 손길이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남양동

새마을지도자 4세대 장병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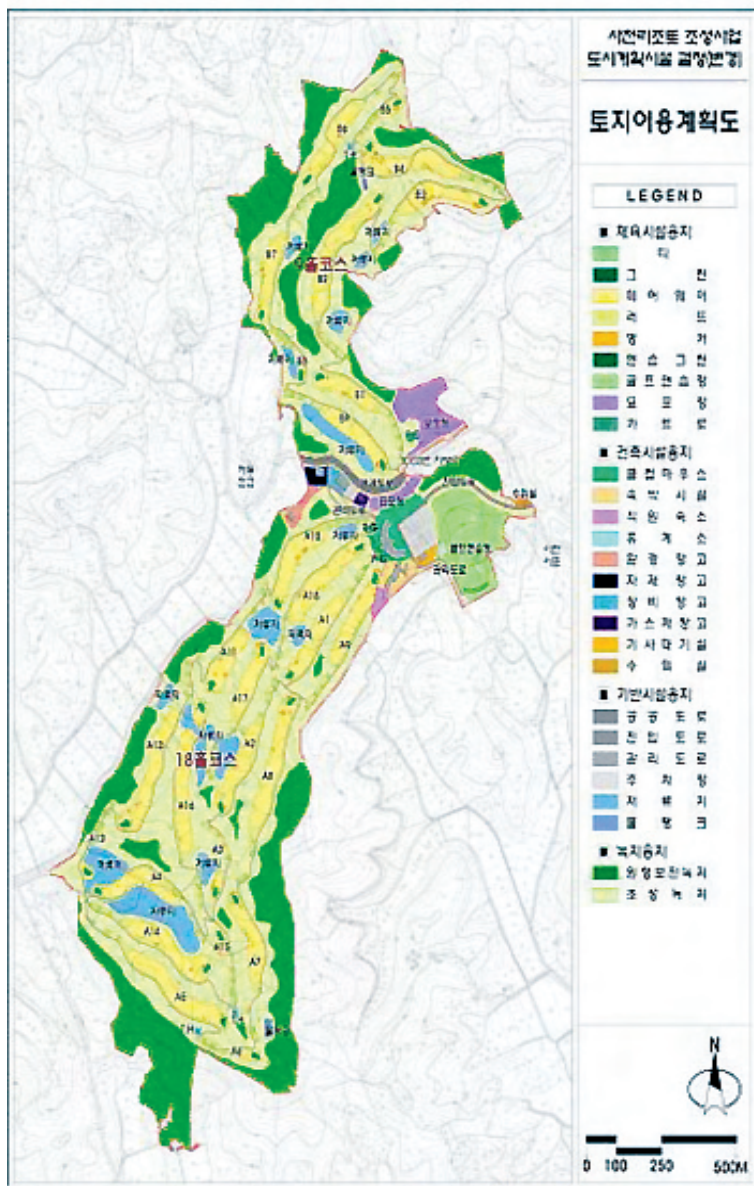
남양동 남·여 새마을협의회(회장 유진수, 이정자)는 지난 달 4일 추석을 앞두고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남양동 소재 8962부대 4세대를 방문해 추석 송편 40포를 전달했다.

4세대 장병들은 평소 농번기 일손 돕기, 산불진화, 수해복구 활동 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민의 보답으로 이날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새마을협의회는 평소 도로변 풀베기, 헌 옷 모으기 등 수익사업을 통해 경비를 마련하고 매년 추석에는 4세대를 방문해 떡을 전달해 오고 있다.



개발계획(안)



# 사천이 뜨고 있다 ④

'지도를 거꾸로 보면 사천의 진로가 보입니다.' 사천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꼬트머리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향한 길목의 중심으로써 물류통로에 있습니다. 어느새 사천시는 '부러운 도시'로 경남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뜨고 있습니다. 사천시보는 지면을 빌어 사천이 뜨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게재코자 합니다.

다 함께 '사천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속의 사천시로 나아가시죠.'

/편집자 주

## 사천시 골프장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민의 뜻 함께 모아야”

사천시 서포면 구평·다평·내구, 곤양면 가화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골프장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0일 사천시와 G.S건설(주)과 양해각서(MOU)체결로 추진 중인 서포골프장과 민간제안으로 추진 중인 가화골프장은 2010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토지보상 등이 원활히 추진되는 가운데 도시계획 시정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 후 경남도에 도시계획 시정 신청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및 관광객 유치와 아울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시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한 서포골프장은 27홀 48만평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1,600억원, 가화골프장은 36홀 51만평

규모에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후, 교통 등 관광시설임지조건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뛰어난 여건을 갖춘 사천시가 첨단항공우주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도 시·군 통합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인구는 매년 줄어들어 시의 존립마저 위기감을 갖는 이때 첨단항공우주산업단지와 연계한 체육시설(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유입과 22% 수준의 열악한 재정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개 골프장을 동시에 건설시 연 11만명의 인부가 투입되며,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 및 중장비등 건설장비의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골프장 운영 중에는 500명의 인원이 상시 고용되어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효과와 골프장 건설비 220억원, 운영비 매년 24억원의 세수는 우리시의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그 한몫을 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240,000명의 골퍼와 90,000명의 가족이 우리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관내 음식점, 주유소, 자동차관련업소등 부가적인 경기 활성화와 유동인구로 인한 지역 특산물(농·수산물 등)의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서포·곤양면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사천대교 개통 등과 때를 같이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낙후된 사천시 서부지역의 미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골프는 정부의 골프 대중화 선언이후 국내 골퍼들의 해외무대 진출과 맞물려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문화의식향상, 주 5일제 본격화 등으로 국내 산업에서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골프인구의 경우 지난 몇 년 사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지난해 13,000,000명의 골퍼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정도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외국에서 외자를 받고 국위를 선양하는 모태가 우리나라, 지역의 골프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지식, 손자들이 맘 놓고 즐기고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골프장을 우리 다같이 한마음으로 건설해야겠다.

물론 주민의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체육시설은 환영받지 못 할 것이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터전! 농·어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설해야 하겠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환영과 박수 속에 골프장이 건설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전행정책을 경주해 도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제 우리지역의 골프장 건설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골프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뜻을 모쳐 주기를 기대한다.

###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35)>

## 자혜리 화석 갯지렁이 초(礎)



자혜리 화석갯지렁이초는 서포면 자혜리 산29번지 지선의 국가소유 공유수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구역면적은 100㎡이고 보호구역 면적을 포함하면 200㎡로서, 갯지렁이가 화석으로 굳은 바윗덩어리를 말한다. 이 화석 바윗덩어리는 중생대중(中生代) 1억 8,200만 년 전의 화석으로서, 현존하는 갯지렁이의 종류는 많으나 집단으로 갯지렁이초의 체화석(體化石)이 발견되어 보고된 기록은 매우 드물다.

이 화석을 포함하는 진주층은 호수퇴적층이므로 지질시대를 통한 갯지렁이의 서식환경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중생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학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화석자료이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기(紀, period)명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암석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예를 들어 중생대의 쥐라기는 스위스와 프랑스에 있는 쥐라산맥에서 이름을 따왔고, 고생대의 데본기는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데본셔군의 이름을, 캄브리아기는 로마시대 웨일즈 지방의 이름을 따왔다. 신생대의 제3기와 제4기의 세(世, epoch)명은 그리스어로, 홀로세는 완전한 현재, 플라이스토세는 거의 현재, 에오세는 현재의 새벽, 팔레오세는 현재의 이른 새벽을 뜻한다.

중생대는 지질시대에서 화석이 풍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의 시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시대이다. 고생대(古生代)와 신생대(新生代) 사이의 시대로, 약 2,500만 년 전부터 약 6,500만 년 전까지의 1억 6,000만 년간에 해당한다. 오래된 순서부터 트라이아스기·쥐라기·백악기(白堊紀)의 3기로 나뉜다.

중생대 무척추동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암모나이트(ammonite: 화석조개)이고, 척추동물로는 파충류, 특히 공룡류가 현저히 발전했다. 육상식물로는 은행나무·소철류·소나무류 등의 갈씨식물이 번성했다

자혜리화석갯지렁이초는 이와 같은 시기에 형성된 화석갯지렁이 바위로 중생대 자연환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경상남도 지정기념물 제241호로 2002년 6월 7일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공룡과 관련한 화석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전 해안에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서포의 해안에는 자혜리의 화석갯지렁이초 외에도 봉상 스트로마톨라이트, 공룡류의 족자류, 새의 족자류 등의 화석뿐만 아니라 2005년 3월에는 나방과 유사한 곤충으로 산소가 풍부한 민물 환경의 1급수에서 서식하는 날도래(Order Trichoptera) 유충의 집단 서식지(microbial-caddisfly bioherms) 화석이 서포면 자혜리의 해안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이 화석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써 화석에 화계의 관상을 끌기도 하였다. 날도래 집단 서식지는 담수성 남조류와 함께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공룡시대인 백악기의 육상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사천만의 해안에서는 중생대 백악기 초기의 다양한 자연사 자료들이 함께 발견되고 있어 자연사 이해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보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문화재청『지질·광물문화재자원조사보고서』2001. 10.  
사천시『문화유적분포지도』2003. 10. 6. 경남문화재연구원  
사천시지정문화유산위원회『사천시지·하천』2003. 11. 25.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사천문화원『향토문화유적』2004. 8. 한글미당출판  
사천시『문화재관리대장』  
[http://www.toursacheon.net/02/02\\_02\\_o.asp?ja=2&m=2](http://www.toursacheon.net/02/02_02_o.asp?ja=2&m=2)  
[http://www.chagokr/research/Curest\\_Db/VewjsVckVkyKey=2302410000.38&queryText=V\\_KDCDD=2](http://www.chagokr/research/Curest_Db/VewjsVckVkyKey=2302410000.38&queryText=V_KDCDD=2)

### 금강산 기행기 ② <8월 21~23일>

## 가깝고도 먼 봉래산 가는 길



II 둘째날(8월 22일 화요일, 날씨: 맑음 오후엔 구름 많음)

아침 6시 30분 식당, 밥과 나물 위주의 식단. 고추가 부드럽고 맵싸하니 맛있게 두 번이나 가져와 찜장에 찍어 먹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 커피믹스를 준비해 후식으로 먹는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는 법이었는데...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거늘, 오늘은 구룡연을 둘러볼 것이다. 구룡계곡을 굽어보는 구룡대와 상팔담을 둘러보지만 4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 한다. 아침 9시까지 구룡계곡 초입에 자리한 목란관(북측 음식점)에 도착했다. 여기서 등산 후 먹는다. 잘 벗겨 만든 녹두점이 별미 중의 별미였는데 오늘 불행히도 식권이 바닥이 나 비빔밥을 먹을 수 없었다. 어제부터 목란관 점심 식권을 구했는데 이게 뭐람...

금강산 외금강 중에서 가장 계곡이 좋다는 이 구룡연, 물색이 예사롭지 않다. 옥색 물결을 가득 풀어 놓고 젓지 않아 깊은 침전이 생긴 듯 가장자리에는 맑은 색도 띠고 있고 가운데는 초록이 선명하다. 자연은 이미 물이 일체의 경계에 들어 있다. 금강처럼 단단하고 새하얗게 잘 생긴 바위를 사리로 무성하고 티 하나 없이 청초한 초록의 일색, 발맞추어 계곡으로 흘러드는 담과 동이라 이름하는 물들의 집합체도 초록을 짙어 물에 풀어 놓은 듯 맑았다.

고와라, 고와라, 참으로 조물주의 오묘한 솜씨이구나! 금강석처럼 단단한 바위들을 보라! 웅만한 비바람에도 끄덕않을 강인함과 누운 듯 서 있는 듯 기묘묘한 자태로 사계절 피고 지는 나무를 벗삼아 겨울엔 눈꽃을 동무 삼아 한시도 우야함을 잃지 않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구룡폭포. 실비단 한 폭 두껍게 늘어뜨려 놓은 듯, 시원스런 자태를 그대로 둘 수 없어 두껍디 두껍게 '비룩볼'이라고 바위에 새겨 놓았다.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로 그 길이가 100m 넘는다고 한다. 해강이란 분

이 쓴 글씨인데 미루 불에서 길다랗게 늘어진 불자의 길이는 이 폭포의 깊이인 13m라고 한다. 예찬하는 마음과 폭포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나타내지만 바위 자체의 아름다움이 마치 칼로 도려 파놓은 듯해 보는 이를 부담스럽게 한다.

1달려서 사과 하나씩을 사서 한 입에 베어 본다. 사과라기 보다 늙은감이라고 생각은 말한다. 역시 심심하고 맑은 맛이다. 상팔담 왕복 1시간.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라 얼마나 높고 아름다우랴? 올라가는 길은 몹시 가팔랐다. 철계단이 거의 80도 각도에 가깝다. 내일 갈 만물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길의 연속이라고 하니 참 짧아서 외야 할 산이다 싶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잘 걷는 분들이 나 이 지경에 보이는 노인네들이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든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더 나 몸도 마음도 더없이 젊어 보이는 분들 만나는 것도 여행의 놀라움이다.

구룡대에서 앞쪽으로 세존봉, 뒤로는 관음연봉 정면으로 상팔담이라 불리는 여덟 개의 못들이 신선처럼, 부처님처럼 신성스럽게 떠 버리고 있다. 사천 쪽으로, 감상하라. 사연을 들려주면 정신이 없다. 어디서 어린 아이 소리나 싶어 고개 돌리니 아빠 지계를 타고 올라온 두 살짜리 꼬마. 엄지손가락을 빨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구경이 좋은 거다. '년 아발 잘만 안 일찍부터 높은 자리에 올랐구나' 하며 잠시 막내아들 태운일 떠올린다.

제법 올랐던 것인지 내려오는 길 중턱부터는 무릎이 기분 좋을 정도로 시큰거렸다. 오르막길에서 흐르던 땀이 그새 다 말라 차갑기까지 하다. 늘 몸의 고비가 있어 그 땀으로 질겨가는 고비를 지나고 나면 시원해지는 느낌 때문에 우리는 웰빙시대에 갖가지 몸의 즐거움을 몰입하는 것 아닐까? 등산과 마라톤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올라갈 때 한 모금 축이던 옥류동에 다시 선다. 우리 조상이 일행 7명을 세워 놓고 사 진을 예쁘게 찍어 준다. 딱 중간지점 정도 되는 옥갈이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와 고인다는 옥류동이다. 금강산의 정기가 서려 있는, 귀한 물을 만져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이 귀한 물을 안 먹어 보고되었는가? 사 가지 고 온 생수는 천덕꾸러기가 돼 버린다.

180도 변신한 옥류동. 브이자로 시원하게 /이인숙 삼천포여중 교사